

데스크시작



최재호
편집부국장·경제부장

일본이 지난 2일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저들의 수출 규제 도발로 시작된 한-일 갈등은 마침내 전면 충돌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두 나라의 충돌은 경제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등 군사-안보 분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산 소재와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물론 경제 성장률도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는 한국 산업이 ‘가마우지 경제’로 일컫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핵심 부품과 설비를 수입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이것을 제3국 시장에 수출해 번 돈을, 다시 일본 소재를 사는 데 쓰는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국이 수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익이 일본에 돌아가는 구조다. 이를 통해 일본은 수고 이후 한국과의 무역에서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다. 이 기간 일본

‘가마우지 경제’ 탈피…위기를 기회로

의 한국에 대한 무역흑자 누적액은 총 6045억 달러(약 725조7022억 원)에 이른다. 이렇게 일본은 자유무역을 통해 우리로부터 막대한 부를 축적해 왔으면서도 징용 배상 등 역사·정치 문제에 대한 무역 보복을 통해 이유 불문 한국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저들은 왜 자충수를 두었나

광주·전남 지역도 일본의 수출 규제 확대로 인해 1200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화학과 전기 및 전자기기 업종을 중심으로 첨단 소재, 기계류, 금속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광주는 전기 및 전자기기 업종(303억 원), 전남은 화학제품 업종(636억 원)이 가장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자유무역을 통해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특히 일본 기업들은 매년 두 배가 넘는 수백 종의 제품을 한국에 수출해서 부를 축적한다. 그렇다면 핵심 수출국인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자충수를 두면서까지 한국을 때리는 이유는 무엇까?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동북아 패권 국가를 노리는 일본은 지난 1965년 이후 한국 산업의 급성장과 동북아의 중심국으로 성장한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 동안 한 수 아래로 여겼던 한국이 디스콰레이티V 등에서 일본을 앞서고, 현대중

공업과 포스코 등은 세계 최고 기업으로, 현대차와 SK 등도 일본이 무시할 수 없는 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산업 전체로는 여전히 일본이 한국을 많이 앞서고 있지만 해당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역량을 키우며 대일 의존도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턱밑까지 추격해 오고 있는 한국이 눈엣가시가 된 것이다. 게다가 최근 위안부 합의,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초계기 문제 등 민감한 현안 등에서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한국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면서, 아직은 우위에 있는 경제 전쟁을 도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일본의 착각이다. 한국의 위상이 일본이 생각한 자리에 있지 않다. 정부도 일본의 도발에 맞서 절대 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또한 예산·세제·제도·입법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는 종합 대책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기회에 소재·부품 산업을 키우고 국산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탈(脫)일본화에 총력을 쏟을 계획이라고 했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는다’

우리는 과거에도 국가적 위기를 맞은 적이 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는 경제·사회적 위기였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 특히 단군 이래 최대 위기로 불렸던

외환위기에서 민초들은 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했다. 이를 통해 전국에서 무려 351만 명이 227t의 금을 내놓았다. 당시 시세로 18억2000만 달러어치로 이를 수출해 외화를 확보할 수 있었다. 금 모으기 운동은 외화 획득이라는 실질적 도움뿐만 아니라 의외의 소득도 있었다. 이 운동이 전개되자 전 세계가 감동해 한국을 돕자는 기운이 일어난 것이다. 세계가 한국의 미래를 믿기 시작했으며 각국 정상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국민성에 탄복을 거듭하며 한국 돕기에 나섰다.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있다. 특히 위기 국면에서는 경제 심리가 악화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시작된 이번 위기로 인해 우리나라는 앞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해야 될지 모른다. 그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심리적 ‘불안감’이다. 일본의 도전을 가볍게 여기고 방심해서도 안 되지만 쓸데없는 위기로 조정이나 호들갑도 안 된다. 감정적 반일(反日)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으로 극일(克日)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한다. 우리는 문제의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처럼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 낼 것이고,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지난 1997년과 2008년 금융 위기를 이겨 냈듯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고 단정한 우리 정부와 정치권 및 국민의 단합된 대응이다.

/lion@kwangju.co.kr

은펜칼럼

경제인으로 살아가기



박홍근
건축사·포유건축 대표

매년 수많은 건축물들이 지어지고, 소멸되고 있다. 건축물도 생로병사한다. 운명의 주도권은 소유자(건축주)의 몫이지만 건축물의 처음과 마지막 모든 과정에 건축사(建築士)가 함께 한다. 건축사는 건축주, 시행사, 시공자, 구매자, 이용자 등을 이해관계자들의 욕망이 상충되는 경계를 넘나들며 업무를 한다.

경계인(境界人)이란 말이 많이 회자된 적이 있었다. 경계인이란 오랫동안 소속됐던 집단을 떠나 다른 집단으로 옮겨갈 때, 원래 집단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급방 버릴 수 없고, 새로운 집단에도 충분히 적응되지 않아서 어정쩡한 상태에 놓인 사람을 말한다. 재독 사회화자

인 송두승 교수는 자신의 저서 ‘경계인의 사색’에서 자신을 ‘경계의 이쪽에도, 저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경계선 위에 서서 상생의 길을 찾아 여전히 해매고 있는 존재, 경계인’으로 규정했다. 필자는 경계인을 이쪽 경계 안에 있다가 저쪽 경계 안으로 갔다 왔다 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그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상생의 길을 찾아 헤매는 존재로 생각해 본다.

필자는 ‘건축사’란 면허를 가지고 경제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건축사는 인간 삶의 공간에 필요한 기본 3요소인 ‘안전’, ‘기능’, ‘미’ 추구를 바탕으로 업무를 한다. 이를 충실히 수행하라고 국가가 권한(?)을 부여한 전문가다. 그 경계인의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한가?

첫째, 건축 설계자로서 경계인이다. 설계는 주문 생산이다. 주문자인 건축주가 고객이다. 설계자를 선택하는 것은 고객의 권한이다. 고객은 개인, 시행사, 공공기관, 단체 등 다양하다. 그들의 입맛에 맞아야 한다. 설계안은 정답이 없다. 여러 전제들을 잘 조사하고, 그간의 축적된 역량으로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

에 있는 사람 마음과 조건과 상황들의 경계 안에서 선택하고, 공간을 조직해야 한다. 만약, 개인이나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고객에게 건축의 사회적 가치나 공공성을 강하게 주장했다가는 수주에 문제가 생긴다. 경제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지속가능하다.

둘째, 조정자로서 경계인이다. 필자는 두 곳의 공공 프로젝트에 기획과 설계 조정, 공사 현장 감독 보조(?) 등의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다른 건축사의 도면을 조정하기란 쉽지 않다. 기획부터 참여한 프로젝트는 그나마 대화가 가능하지만, 이미 설계를 마감한 다음에 개념을 변경한다는 것은 힘들다. 장소와 공간에 대한 개념의 재해석, 기능의 변화를 조정해야 하는 입장에서 설계자, 감리자, 시공사, 감독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경계 안에 돌고돌고 있어야 한다. 이런 경계들의 교집합이 잘 모여야 완성품이 만들어 진다. 좋은 완성품을 위해서는 각자의 지식과 지혜, 유연한 생각과 창의성, 열정과 자부심을 발산하고 융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계인 조정자의 중요한 역할이다.

기 고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폐회 공연 ‘사계절’



김영순
광주문화재단 빛고를시민문화관장

연일 폭염이다. 갈수록 여름은 더욱 더워지고 겨울은 더욱 추워진다. 거기다 여름과 겨울은 길어지고 봄과 가을은 짧아진다. 해서, 언제 봄이었나 싶게 여름이 되고 언제 가을이었나 싶게 겨울이 되어 버리곤 한다. 예전 같으면 7월 말, 8월 초 사이 그 며칠만 견디고 나면 혹서기는 지나갔으나 우리 앞엔 찜통더위가 한동안 더 지속될 것이라는 정그런 현실이 떠올려 버티고 있다.

얼마 전 2019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폐회식에서 ‘사계절’을 테마로

한 공연이 열렸다. 사계절이 뚜렷할 뿐 아니라 아름답다는 자긍심이 되색되어 가는 즈음 마주한 거여서인지 눈길을 끌었다. 우리가 나고 자란 이 땅의 사계절을 우리의 전통 예술과 함께 잘 마무리한 공연이었다. 아름다운 사계절의 진경을 보는 것 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다. 화사한 봄꽃 속에서 어린 소녀가 사철가를 부르며 강중 나왔다. 여리디 여린 몸에서 구경진 소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그 가락에서 절로 꿈과 희망이 샘솟았다.

그리고 여름이 왔다. 객석 사이를 크게 관통하며 흐르던 꽃의 봄강이 어느새 파란 여름강으로 변했다. 그러곤 짙주웠다. 쿵광거리는 음악, 연주자들의 절제된 연기와 목청이 한데 어우러진 가운데 미디어아트의 영상은 객석을 환상 속 현실로 가만히 이끈다. 계절은 여름에서 슬쩍 가을로 넘어가며 어느새 황금달빛이다. 운룡 황금색이 넘실대며 풍요의 세

계가 짝아 펼쳐졌다. 객석 사이를 흐르는 무대는 어느 새 하얀 겨울 강으로 변했다. 눈발이 날리고 세상은 순백인데 저 멀리 무대의 들머리에서 한 세월을 견뎌내며 모든 것을 우려낸 듯한 목청이 눈강을 가르며 뻗어 나왔다. 세상을 가만히 그러나 차분히 쥐락펴락하는 듯한 강력 한 카리스마가 소리에서 흘러나온다. 명창 안숙선이다. 때론 한스롭게 때론 강건하게 토해내는 그의 사철가는 객석을 확 휘어잡는다.

폐막 공연은 봄에서 여름으로 치달았고 가을로 갔는가 하면 겨울로 뛰어들며 객석을 뒤흔들었다. 대한민국의 사계절을 마음껏 담아냈다. 세련된 영상으로 계절의 강을 흐르게 했고 음악으로 계절의 체온을 보듬었으며 춤판으로 신명을 풀어냈다. 결판지게 멋진 한판이 흥건히 벌어졌다. 그토록 아름다운 우리의 사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자연스럽게 녹아든 공연이었다. 파도편스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셋째, 심의위원으로서 경계인이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건축 허가를 득하기 위해 각종 심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필자도 심의를 받기도 하고, 심의를 하기도 한다. 관점이 다르니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다. 설계자는 건축주의 경계선 안에 더 들어가 있을 것이고, 심의위원은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도시 경관과 거주자 편의, 이용자와 주변에서 바라봐야 하는 시민 등의 경계선 안에 있어야 한다. 눈앞에 있는 0.0001% 건축주와 99.9999%의 시민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려면 높은 시선의 사유가 필요한 이유다. 나는 잘 하고 있는가? 말할 수 없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각각의 상황에서 경계인이 될 수밖에 없다. 늘 ‘올’의 입장만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갑’이 되기도 한다. 경계인으로서 높은 차원의 균형 감각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다. 입장을 서로 바꾸어서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가 필요한 이유다. 이런 역량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나의 속제다. 지금까지 숙제를 잘해야겠다.

ACC 예술극장 안은 한 순간 농악대가 신나는 농악놀이를 펼쳤고 공연에 참가한 모든 예술인들이 다 무대로 나왔다. 그리고 예술극장의 빅 도어가 짹 열렸다. 야외 공간으로 농악대가 선두를 잡으며 객석의 관람객들을 밖으로 유도했다. 예술극장 앞 광장에서 예술인, 관객, 수형인수권대회 관계자들이 서로 뒤섞이며 한참이나 신명나 마당을 연축해냈다. 예술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처럼 모두가 절로 어깨를 뽐뿌리고 엉덩이까지 흔들며 신명난 시간을 만들었다.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공연으로 보는 즐거움이 정말 컸다, 여름은 더워워지지 않고 더 길어지지도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혹서기의 한 중앙에서 간절히 외쳐본다. 우리의 사계는 아직 아름답다고. 그리고 그 순환하는 사계의 숨결 속에서 우리는 쉽 없이 아름다운 예술을 만들어 내고 문화를 창조해 나간다고.

社說

열악한 섬마을 교육여건 이번엔 개선되나

바다로 둘러싸인 섬 지역은 고립된 환경과 불편한 교통수단 때문에 육지에 비해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 아이들을 몰로 보내고, 교사들마저 섬 학교 근무를 기피한다. 도서 지역 학교와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이유다. 학생 감소는 다시 학교 통폐합과 교사 및 교직원 감소로 이어져 교육 환경을 더욱 악화시킨다.

전남도교육청이 이 같은 악순환을 끊고 섬 지역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오는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섬 지역에 경력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교원 인사제도를 보완한다. 3년 이상 장기 근속한 중등 교사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해 전보·승진에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 해남·완도·진도·신안에서는 8년 이상 장기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속 상한 연한도 개정한다. 보건·사서 교사도 ‘지역 단위 교원 임용제’로

선발해 학생들이 위생 관리와 독서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섬과 도시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원어민 교사가 없는 학교 다섯 곳에 원어민 강사를 배치해 이들이 주변 학교를 순회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방과 후 학교 내실화’를 위해 학급당 운영비를 증액해 외부 강사 확보를 지원하고, 교원들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전남 지역은 전체 초·중·고교 896개 중 섬 학교 비율이 10.8%(97개)에 이르고 전체 학생 중 섬 지역 학생 비율도 1.5%(2874명)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들이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교육 차별이나 다름없다. 전남도교육청은 새로 내놓은 대책이 섬 지역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도 촘촘히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 폭락 양파의 눈물인가 농민의 눈물인가

최근 양파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이 한숨을 짓고 있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양파 소비 촉진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반박되는 ‘양파 파동’은 일시적인 소비 운동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올 들어 양파를 포함한 주요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서 인건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농민들의 하소연이다. 그렇다면 양파 값 폭락은 왜 일어난 것일까. 올해 양파 작황이 지나치게 좋았기 때문이다. 대풍으로 양파 공급량이 급증하면서 가격이 폭락한 것이다. 반면 가격 하락에도 소비는 크게 늘지 않는다.

노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은 기후에 따라 풍년과 흉년이 반복돼 생산량의 변화 폭이 크지만 소비량은 크게 변화가 없다. 이로 인해 공급이 적정 물량보다 조금만 더 늘어도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수급 예측을 통해 사전에 재배 물량을 조절하는 것이 긴요하다.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無等鼓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로 꼽히는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출품된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강제로 중단됐다. 일본 정부 및 정치권의 압박과 극우 단체의 협박으로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함께 지키던 소녀상은 전시 사흘 만에 강제 철거되고, 해당 전시도 중지됐다.

이번 전시회는 ‘표현의 자유, 그 후’라는 주제로 소녀상 등 일본 정부의 외압과 제재로 그동안 제대로 전시되지 못한 작품을 한데 모은 기획전이었다. 그런데 이를 일본 정부가 압박하

고 협박해 중지시킨 것이다. 소녀상을 비롯해 이번 전시를 강제로 중단시킨 것은 그야말로 일본 정부와 정치권 스스로가 ‘표현의 부자유’를 증명해 보인 꼴이 됐다.

아이치 트리엔날레는 지난 2010년 시작해 올해 4회째로, 세계 미술계에서 위상을 급속히 키워 가는 중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전후 일본의 최대 검열’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정부의 압박과 우익 세력의 항의를 견디지 못하고 기획전을 중단하면서 국제예술제로서 위상도 잃게 됐다. 이번 전시는 개막과 동

시에 일본 정부와 정치권의 노골적인 중단 압력과 일부 우익 세력의 협박에 시달려야 했다. 일본 정부는 예술제 보조금 중단과 보조금 내역 조사로 주최 측을 압박했고,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 시장은 위안부 비난 망언을 일삼으며 전시 중단을 요구했다. 여기에 일부 우익 세력들은 “철거하지 않으면 가솔린 통을 들고 가겠다”며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그리고 역사적 비극의 재발을 막자는 의미를 지닌 소녀 동상이다. 반일(反日)의 상징이아닌 평화의 상징으로서 해석된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이번 소녀상 전시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설치된 소녀상에 대한 철거에 혈안이 돼 있다.

여기에는 일본 정부가 끔찍한 전범 국가의 역사를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 이번 소녀상 전시 중단은 일본 사회에 여전히 ‘표현의 부자유’가 있다는 사실과 일본 정치인들이 역사의 진실을 알리는 것 자체를 불편해 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 또 하나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최원철 정치부 부장 cki@